



<b>Project 1</b>
<b>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b>
<b>주제</b>
<b>기간</b>
<b>전시장소</b>
<b>전시감독</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Project 1은 한·중·일 3개국, 5명의 큐레이터들에 의해 '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라는 주제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60~80년대의 한국, 중국, 일본의 자생적 실험미술인 아방가르드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에서 'an'은 아방가르드의 전위 정신은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이며, 'other'는 전위정신은 하나일 수 있으나, 한·중·일 3개국의 예술이 당시에 처한 상황과 형식은 저마다 다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중·일 3개국이 아시아를 대표할 수는 있지만 아시아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기에 알파벳 순에 따라 'china-japan-korea'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3개국 총 65명(팀)의 작품 148점이 출품될 예정이며, 한·중·일 3개국의 공동 아카이브 공간을 마련하고 각각의 주요 자료들을 비치함으로써 세계미술사 속에서 아시아 3국의 전위예술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별 섹션의 전시는 중국의 경우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를 기점으로 1995년까지이며, '북경의 봄'과 천안문사태 그리고 1996년의 원명원 사태까지 이어진 일련의 저항과 갈등의 시기를 다룰 것입니다.

일본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히로시마 원폭 이후부터 80년대 말까지의 전위예술, 구타이, 모노하, 슈퍼플랫의 일부분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70-80년대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자유를 추구하면서 단색화나 민중미술의 기저를 이루면서도 미처 조망 받지 못했던 영역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미술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Project 1은 망각되고 평가절하된 60~80년대 한·중·일 3개국의 전위미술을 복원하고 세계미술사의 흐름 속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한국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미술사에서조차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 Project 1을 통해 한·중·일의 자생적 전위예술의 영역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 미술사의 일부분으로 복원되길 기대합니다.

전시와 동시에 진행될 세미나에는 아시아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의 관련분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한·중·일 전위미술의 실체를 확인하고 미술사적 미학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b>개요</b>
<b>2016부산비엔날레</b>
<b>주제</b>
<b>기간</b>
<b>전시장소</b>
<b>전시감독</b>
<b>출품작가</b>
<b>출품작</b>
<b>전시구성</b>

<b>2016부산비엔날레 Project 1</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큐레이터</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2016부산비엔날레 Project 2</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전시감독</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2016부산비엔날레 Project 3</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채널 B</b>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프로그램)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이를 통해 90년대 이전의 자생적, 로컬 아방가르드 시스템과 90년대 이후에 대두한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이 둘의 관계(연속-불연속-습합)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시 형식으로서의 ‘비엔날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며, 작자적 존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입니다.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시공을 초월해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기술은 전 지구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버렸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하나의 앱 속에는 전 세계 10억 인구가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하여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다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예술인과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토론하는 비엔날레야말로 다중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전시형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문학이나 음악, 영화 등 다른 문화 영역이 가지지 못한, 미술이라는 장르와 비엔날레라는 형식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입니다.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시장의 비효율성과 인간의 비합리성, 시장과 제도에 종속된 미술의 근원적 취약성 등을 모두 성찰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벤야민의 철구처럼 문명의 기록은 동시에 아반의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산비엔날레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b>주제</b>
<b>기간</b>
<b>장소</b>
<b>구성</b>
<b>출품작가</b>
<b>작품</b>
<b>전시구성</b>

<sup>[1]</sup> Project 1은 한·중·일 3개국, 5명의 큐레이터들에 의해 '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라는 주제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60~80년대의 한국, 중국, 일본의 자생적 실험미술인 아방가르드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sup>[2]</sup> 이번 전시에는 3개국 총 65명(팀)의 작품 148점이 출품될 예정이며, 한·중·일 3개국의 공동 아카이브 공간을 마련하고 각각의 주요 자료들을 비치함으로써 세계미술사 속에서 아시아 3국의 전위예술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